

'26. 9. 11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테

○ 누리호 5차 발사 앞두고...드론·폭발·테러까지 '실전 안전훈련'

- 9.2 언론은 우주항공청이 오는 10월 7일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3일 나로우주센터에서 군·경찰·지자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비인가 드론 출현·테러 등 상황을 가정한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보도

○ 고교 시절 ISIS 충성 맹세·폭발물 테러 계획 대학생, 징역형 구형

- 9.3 언론은 검찰이 고교 재학 중 ISIS 암호화 사이트에 수천 차례 접속해 충성을 맹세하고,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한 뒤 테러를 계획한 18세 대학생에게 단기 1년·장기 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보도

○ 파키스탄, 발루치스탄서 대테러 소탕작전...48명 사살

- 9.6 언론은 파키스탄 보안군이 발루치스탄州에서 TTP 대상 대규모 소탕 작전으로 테러 분자 48명을 사살하고, 다수의 탄약과 사제 폭발물(IED)을 파괴했다 보도

※ 파키스탄 보안군은 남은 테러 분자를 제거하기 위한 소탕 작전을 수행 중이며, 이후에도 테러 분자를 상대로 대테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 강조

유럽

○ 獨, 최근 공항 드론 테러 배후로 러시아 지목, 영사관 폐쇄조치

- 9.3 언론은 독일 정부가 지난달 라이프치히 공항 폭발물 드론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 정보기관을 지목하고 독일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·러시아 국적자 입국 심사 강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

○ 튀르키예, 테러 기도 IS 연계 용의자 총격전 끝 사살

- 9.4 튀르키예 경찰은 이스탄불에서 국내 테러를 모의한 IS 연계 용의자(21)를 추적, 버스터미널에서 체포에 불응하며 총격을 가하자 응사해 사살하고 접촉자 1명을 체포했다 발표

○ 獨, 방산업체 연쇄 방화 시도…극단주의 연계 가능성 수사

- 9.4 독일 경찰은 뮌헨 소재 방산업체 2곳에 방화 장치를 이용해 공격을 시도한 불가리아 국적 남녀 2명을 체포했으며, 정치적 동기와 극단주의 세력 연계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발표

※ 유럽 내 방산·에너지 등 국가중요시설을 겨냥한 방화·파괴행위가 이어지는 만큼, 국내 핵심시설 대상 유사 위협과 모방행위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부언

미 주

○ 멕시코, 경찰을 겨냥한 차량 폭탄테러…11명 부상

- 9.2 외신은 멕시코 사카테카스주 경찰본부 앞에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경찰관 등 11명이 부상당했으며, 현지 당국은 범죄조직 '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(CJNG)'의 보복 공격으로 보고 있다 보도

※ 언론은 사카테카스주에서 올해 들어서만 10건의 폭발물 사건이 발생했으며, 이 가운데 7건이 군·경 등 치안 인력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부언

○ 콜롬비아, 폭탄테러 사건 '200건' 넘어…사회 불안·공포 증폭

- 9.6 언론은 올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가 최소 200건을 넘었으며, 이는 콜롬비아 전국 각지에서 하루 평균 0.84건 꼴로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셈으로, 사회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보도

※ 「콜롬비아 무장혁명군(FARC)」, 「민족해방군(ELN)」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무장한 마약 카르텔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부언

○ 美, 'WMD 거래' 한국 기업 제재 조기 해제

- 9.7 언론은 정부가 '이란·북한·시리아 비확산법'상 대량살상무기·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거래한 혐의로 한국 기업(JS 리서치)에 부과했던 제재를 7개월 만에 조기 종료한다 보도

※ 美 국무부는 이번 JS리서치의 제재 해제 발표에서도 세 나라 가운데 어디와 어떤 물품을 거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인도령 카슈미르주 파할감 총기테러 사건 발생

- '25. 4. 22. 인도령 카슈미르주 파할감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, 사망자 26명 발생

* 사망자 대다수는 힌두교도로 인도 내 반무슬림 여론 고조

- 인도 정부는 「라쉬카르 에 타이바」(LeT)가 동일 사건을 자행하였고, 그 배후에 파키스탄 정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

*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 정부의 주장을 즉각 반박

- 「국가수사청(NIA)」은 테러범에게 은신처·물자를 제공하는 등 「LeT」 연계 혐의로 7명을 특별법원에 기소하였고
- 인도 군은 「신두르 작전」을 전개해 파키스탄령 아지드 카슈미르 등을 공습하는 등 군사 작전을 단행

- 파할감 테러는 남아시아 대표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, 핵 보유국인 인도-파키스탄간 무력 충돌까지 확전된 사례



테러 상식

<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, Lashkar-e-Taiba) >

- (결성배경) 아랍어로 'Lashkar'는 군대, 'Taiba'는 '의로움'의 의미로 '의병대'를 뜻하며 아프간에서 소련군 철수('89년)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가 「압둘라 아잠」, 「하피즈 사이드」등이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키스탄 귀속과 남아시아의 이슬람화를 목적으로 결성
* 테러단체 지정 : UN('05.5), 미국('01.12), 영국('01.3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펀자브·카이버파크툰와주·카슈미르 지역, 인도령 도다·잠무 카슈미르 지역
- (주요테러) '08.11 인도 뭄바이 호텔, 기차역 등 동시다발 테러(사망 166명, 부상 300명)
'15.7 인도 펀자브주 구르다스푸르 경찰서 기습공격(사망 19명)

